

The Impact of New Media Use Level on Emotional Well-being: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nflict of Interest

Min Soo Kim*, Woo Hong Cho*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Chu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new media use on individuals' emotional well-being and examined whether perceived interest conflict mediates this effect.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24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s Social Integration Survey (N=8,251) and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mediation effects. Key finding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new media use were associated with a greater perceived interest conflict, which in turn worsened individuals' emotional well-being. Furthermore, perceived interest conflic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confirming the association between new media use, perceived interest conflict, and emotional well-being.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for fostering a healthy new media environment are presented.

▶ **Key words:** New media usage level, Emotional well-being, Perceived conflict of interest, Medi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요 약]

본 연구는 뉴미디어 이용 수준이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이익갈등 인식 수준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N=8,251)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매개효과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뉴미디어 이용 수준이 높을수록 이익갈등 인식 수준이 심화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익갈등 인식은 두 변수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며 뉴미디어 이용과 이익갈등 인식, 그리고 정서적 웰빙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뉴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뉴미디어 이용, 정서적 웰빙, 이익갈등 인식,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모형

-
- First Author: Min Soo Kim, Corresponding Author: Woo Hong Cho
 - *Min Soo Kim (kmulysses@seowon.ac.kr),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 *Woo Hong Cho (csdcj@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 Received: 2025. 08. 11, Revised: 2025. 09. 08, Accepted: 2025. 09. 12.

I. Introduction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이전 사회와는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부와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남녀노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디어는 전통적인 차원에서 신문,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뉴미디어라고 불리는 인터넷, 유튜브, SNS 등까지 포함하는데 이처럼 다양해진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다른 방향으로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디어의 이용은 개인에게 있어 물질적인 가치 창출, 정보 수집, 사회적 관계 형성, 취미 활동 등의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우울, 불안, 행복 등과 같은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조사했을 때 '뉴스, 기사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볼 때(36.0%)'와 '온라인상에서 의견 대립을 볼 때(17.8%)'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비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갈등 정보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을 때 '언론보도(80.4%)'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 '인터넷 커뮤니티(53.6%)', '유튜브(21.9%)', 'SNS(16.7%)'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2]. 이처럼 개인은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심해질 수 있다[3].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에 대한 이용이 빈번해지면서 개인은 다양한 사회현상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현상은 사회갈등에 대한 정보이다. 미디어 이용의 보편화를 통해 사회갈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성이 향상되며 이는 사회갈등 인식을 형성하고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4].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현재 사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이념적, 계층적, 세대적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때 개인은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소속 집단 외 타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을 형성하게 되면서 심리적 스

트레스 가중, 만성적인 불안, 우울, 분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1]. 즉,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함에 따라 개인은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어 부정적인 감정상태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이용의 증가는 사회갈등 인식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미디어의 이용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고립시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미디어에서 송출되는 대립에 노출된다는 점 등에 의해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뉴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사회갈등의 모습은 개인의 사회갈등 인식 수준을 심화시켜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을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이 사회갈등 인식을 심화하여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미디어 이용의 증가와 다양한 사회갈등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현대사회에서 접근성이 높은 뉴미디어의 이용과 개인의 정서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이익갈등 인식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Media Use and Emotional Well-Being

개인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환경과 조건에 따라 정서적 웰빙 수준이 변화하게 된다. 특히 사회가 불안한 상황에서 개인은 우울, 불안, 낮은 행복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가질 수 있으며[5] 이는 결국 일상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6].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정 기간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여 대면 소통이 부족해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참여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과도한 정보의 양에 노출된 것 뿐만 아니라 거짓뉴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면서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하였다[7].

1.2 Media Use and Social Conflict

다양한 미디어의 확산과 이에 따른 개인의 미디어 이용은 정보 획득, 의사표현에 있어서의 자유, 사회참여 기회

의 확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8]. 하지만 최근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3]. 전통적 미디어와는 달리 뉴미디어는 개인의 선택적 노출을 강화하는데 개인의 의견과 태도,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의견, 태도, 가치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9]. 이처럼 미디어 이용에 따라 개인의 선택적 노출이 점차 강화되고 다른 의견에 대한 이해 및 배려가 약화되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10, 11].

사회갈등의 유형은 갈등의 성격, 원인 또는 이슈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갈등 발생의 원인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익갈등(Interest Conflict)과 가치갈등(Value Conflict)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이익갈등은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놓고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로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이익갈등이다. 그리고 가치갈등은 이념, 가치관,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이 인식하는 지향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서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의 갈등, 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가치갈등이다.

결국 뉴미디어의 보편화는 모든 세대가 많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택적 노출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게 된다. 특히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적 계층에 대한 갈등, 고용형태에 대한 갈등,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은 뉴미디어로 인해 더욱 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1.3 Social Conflict and Emotional Well-Being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회적 갈등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13]. 사회갈등은 사회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상호 불신 및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14].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주로 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배우자 및 친구와의 갈등은 우울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뿐만 아니라 이념갈등, 노사갈등, 성별갈등 등과 같은 사회갈등은 삶의 만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한다[16].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의 현상은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사회갈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으로 구분하는데 두 갈등 모두 개인이 뉴미디어 이용에 따라 개인의 정서적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가치갈등보다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익갈등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된 갈등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나타난 자원의 재분배와 관련한 갈등[17],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갈등[18] 등과 같이 자원의 재분배와 소득계층 간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해 소득의 불평등 심화, 사회계층의 이동에 대한 신뢰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맥락을 고려함과 동시에 연구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사회갈등의 유형 중 이익갈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III. The Proposed Scheme and Research Method

1. Data Collection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이다.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8,251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결측치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변수로서 정서적 웰빙 수준을 종속변수로, 미디어 이용 수준을 독립변수로, 사회갈등 수준을 매개변수로 하여 Stata 17.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2.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뉴미디어 이용 수준이 정서적 웰빙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익갈등 인식 수준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뉴미디어 이용과 이익갈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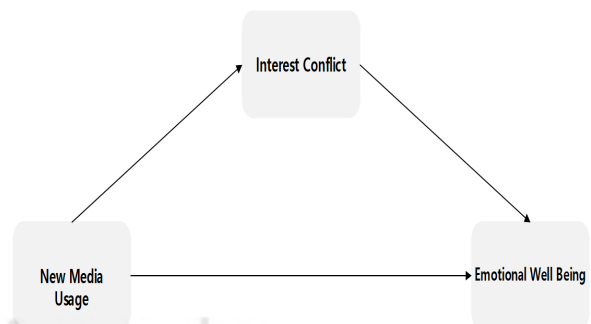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 Hypothesis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뉴미디어 이용 수준은 이익갈등 인식 수준을 매개로 정서적 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 H1. 뉴미디어 이용 수준은 정서적 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뉴미디어 이용 수준은 이익갈등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이익갈등 인식 수준은 정서적 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뉴미디어 이용 수준은 이익갈등 인식 수준을 매개로 정서적 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Measurement Items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와 상세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뉴미디어 이용 수준(New Media Usage, NMU)은 “귀하는 평소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SNS(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 매체(유튜브 등)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는 문항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①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부터 ‘⑦ 매일’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의 신뢰도는 0.835로 나타났다. 이에 위와 같은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뉴미디어 이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이익갈등 인식 수준(Interest Conflict, IC)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보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 ‘(1)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3)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4)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과 같은 갈등에 대한 문항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① 전혀 심하지 않다’부터 ‘④ 매우 심하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의 신뢰도는 0.682로 나타났다. 이에 위와 같은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익갈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서적 웰빙 수준(Emotional Well Being, EWB)은 주관적 웰빙을 확인하는 문항에서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하였습니다습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와 같은 3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의 리커트 척도는 행복이 ‘① 전

혀 행복하지 않았다’부터 ‘⑩ 매우 행복했다’까지로, 걱정 에 대한 문항은 ‘①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부터 ‘⑩ 매우 걱정했다’까지로, 그리고 우울에 대한 문항은 ‘①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부터 ‘⑩ 매우 우울했다’까지의 10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의 신뢰도는 0.619로 나타났다. 이에 위와 같은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해석의 편이를 위해 분석 과정에서는 걱정과 우울에 대한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웰빙 수준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Table 1. Measuring tool

Variable	Concept definition	Reference
New Media Usage (NMU)	The level of media use to obtain information in daily life	Likert 7 $\alpha = 0.835$
Interest Conflict (IC)	The severity of the level of conflict currently occurring in our society	Likert 4 $\alpha = .682$
Emotional Well Being (EWB)	The level of happiness, anxiety, and depression	Likert 10 $\alpha = 0.619$

5.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Table 2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과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3,985명(48.3%), 여성 4,266명(51.7%)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은 60세 이상(2,870명, 34.8%), 50~59세(1,635명, 19.8%), 40~49세(1,368명, 16.6%), 30~39세(1,220명, 14.8%), 그리고 19~29세(1,158명, 14.0%)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배우자 있음이 5,853명(70.9%), 배우자 없음이 2,398명(29.1%)로 나타났다. 본인의 최종 학력의 경우 대학교 이상(4,163명, 50.5%), 고등학교(2,796명, 33.9%), 중학교(677명, 8.2%), 초등학교(481명, 5.8%), 무학(134명,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고용상태의 경우 미취업자(3,870명, 49.9%)가 가장 많았으며 상용직(3,626명, 44.0%), 비상용직(755명, 9.2%)로 나타났다.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4,060명, 49.2%), 보통(2,505명, 30.4%), 매우 좋음(1,155명, 14.0%), 좋지 않음(480명, 5.8%), 매우 좋지 않음(51명,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6백만원 이상(2,262명, 27.4%), 5백만원~6백만원(1,463명, 17.7%), 4백만원~5백만원(1,377명, 16.7%), 3백만원~4백만원(1,352명, 16.4%), 2백만원~3백만원(893명, 10.8%), 1백만원~2백만원(611명, 7.4%), 1백만원 미만(293명, 3.6%)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수준은 7점(2,271명, 27.5%), 6점(1,977명, 24.0%), 8점(1,616명, 19.6%), 5점(1,365명, 16.5%), 4점(409명, 5.0%), 9점(370명, 4.5%), 3점(134명, 1.6%), 2점(57명, 0.7%), 10점(28명, 0.3%), 1점(22명, 0.3%), 0점(2명, 0.0%)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대화 수준의 평균은 2.77점(표준편차 0.472)으로 나타났다.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N = 8,251)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3,985	48.30
	Female	4,266	51.70
Age	19~29	1,158	14.03
	30~39	1,220	14.79
	40~49	1,368	16.58
	50~59	1,635	19.82
	60~	2,870	34.78
Spouse	Yes	5,853	70.94
	No	2,398	29.06
Education background	Not edu	134	1.62
	Elementary	481	5.83
	Middle	677	2,796
	High	2,796	33.89
Employment state	University	4,163	50.45
	Not employ	3,870	46.90
	Irregular	755	9.15
Health state	Regular	3,626	43.95
	Very bad	51	0.62
	bad	480	5.82
	So so	2,505	30.36
	Good	4,060	49.21
Household income (KRW)	Very good	1,155	14.00
	Less than 1,000,000	293	3.55
	1,000,000 ~2,000,000	611	7.41
	2,000,000 ~3,000,000	893	10.82
	3,000,000 ~4,000,000	1,352	16.39
	4,000,000 ~5,000,000	1,377	16.69
	5,000,000 ~6,000,000	1,463	17.73
Satisfaction of Life	More than 6,000,000	2,262	27.41
	Not very Satisfaction	2	0.02
	1	22	0.27
	2	57	0.69
	3	134	1.62
	4	409	4.96
	5	1,365	16.54
	6	1,977	23.96
	7	2,271	27.52
	8	1,616	19.59
	9	370	4.48
Very Satisfaction	28	0.34	
Level of conversation		2.77 (0.472)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뉴미디어 이용 수준은 최소값 1, 최대값 7, 평균 4.84(SD=1.71)로 나타났다. 이익갈등 인식 수준은 최소값 1, 최대값 4, 평균 2.77(SD=0.54)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웰빙 수준은 최소값 1, 최대값 10, 평균 6.36(SD=1.41)으로 나타났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 = 8,251)

Variable	Min	Max	Mean(S.D)
New Media Usage (NMU)	1	7	4.84(1.71)
Interest Conflict (IC)	1	4	2.77(0.54)
Emotional Well Being (EWB)	1	10	6.36(1.41)

IV. Analysis results

1. Measurement Model Analysis

뉴미디어 이용 수준, 이익갈등 인식 수준, 그리고 정서적 웰빙 수준의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이론적 개념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든 측정 변수는 표준화 계수로 평가되었으며 각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표준화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각 문항의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S.E), z값, p값, 신뢰구간(95% CI), 그리고 측정모형의 문항별 잔차분산(오차분산)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Table 4. Measurement model analysis (N = 8,251)

Variable		β	S.E	z	CI(95%)
New Media Use (NMU)	NMU1	.709	.007	100.47***	.695~.722
	NMU2	.695	.007	101.30***	.682~.708
	NMU3	.866	.005	166.05***	.856~.876
	NMU4	.745	.007	114.17***	.733~.758
Interest Conflict (IC)	IC1	.633	.012	52.15***	.609~.656
	IC2	.620	.012	51.41***	.596~.644
	IC3	.579	.012	48.94***	.556~.602
Emotional Well Being (EWB)	EWB1	.189	.012	15.72***	.165~.212
	EWB2	.795	.024	33.2***	.748~.842
	EWB3	.823	.025	33.34***	.775~.872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χ^2 검정 결과 모형

적합도 지표는 1524.026(df=23,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하지만 χ^2 지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에 추가적인 적합도 지표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를 추가 검증하였다. 우선 CFI(Comparative Fit Index)는 1.000, TLI(Tucker-Lewis Index)는 1.000으로 나타나 일 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인 .95를 상회하여 매우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절대 적합도 지표인 RMSEA는 .000(90% CI: .000~.000)로 .05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 매우 적합한 수준이며 SRMR은 .000 으로 .05 이하로 매우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 형은 모든 적합도 지표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해당 구조방정식 모형이 자료를 분 석함에 있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기에 분석 가능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Table 5.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fit verification

Goodness of fit indicator	Results	Criteria
χ^2	1524.026	-
CFI	1.000	≥ .95 (양호)
TLI	1.000	≥ .95 (양호)
RMSEA	.000	≤ .05 (양호)
SRMR	.000	≤ .05 (양호)

2. Structure Model Analysis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해 보면 뉴미디어 이용 수준과 정서적 웰빙 수준 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R=-3.57, p<.001). 이는 뉴미디어 이용 수준이 정서적 웰빙 수준 약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뉴미디어 이용 수준과 이의갈등 인식 수준 간의 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R=3.78, p<.001). 이는 뉴미디어 이용 수준이 많아질수록 이의갈등 인식이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의갈등 인식 수준과 정서적 웰빙 수준 간의 경로를 확인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R=-6.42, p<.001). 이는 이의갈등 인식 수준이 심화될수록 정서적 웰빙 수준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요 변수 간의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뉴미디어 이용 수준은 정서적 웰빙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의갈등 인식 수준을 매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Structure model analysis

(N = 8,251)

Path diagram	Estimate		S.E	C.R
	B	β		
NMU → EWB	-.040	-.048	.011	-3.57***
NMU → IC	.017	.053	.004	3.78***
IC → EWB	-.182	-.070	.028	-6.42***

3. Mediating Effect Decomposition

주요 변수의 경로 간 영향 관계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한 후 매개효과 분해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미디어 이용 수준이 정서적 웰빙 수 준에 미치는 총 효과는 -.043으로 직접효과(-.040)와 간접 효과(-.003)를 동시에 미치고 있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사회갈등 인식 수준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05~-.001로 0이 포함되지 않았 고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결국 이의 갈등 인식 수준이 뉴미디어 이용 수준과 정서적 웰빙 수 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Mediating effect decomposition

(N = 8,251)

Path diagram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Indirect trust interval
NMU → IC → EWB	-.043	-.040	-.003	-.005~-.001***

*p<.05, **p<.01, ***p<.001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뉴미디어 이용 수준이 정서적 웰빙 수 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의갈등 인식 수준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이의갈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뉴미디어를 통해 영향을 받는 이의갈등이 개인의 정서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 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주요 변수 중심으로 살펴 보면 우선 뉴미디어 이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웰빙 수준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4, 6, 7]. 즉, 뉴미디어 이용을 많이 할수록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은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단순히 뉴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영향보다는 뉴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이 불안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19]를 고려해 보았을 때 뉴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콘텐츠에 따라 우울과 불안,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뉴미디어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을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따라 개인의 감정상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교육에서 콘텐츠 제작 시 윤리 규범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뉴미디어 이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익갈등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련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 10, 11]. 뉴미디어는 전통적 미디어와는 달리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선호하는 콘텐츠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과 태도, 가치와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의견과 태도, 가치를 강화시키게 된다. 결국 개인의 선택적 노출이 점차 강화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 및 배려가 약화됨으로써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뉴미디어의 보편화 속에서 개인의 선택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익갈등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웰빙 수준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3, 16]. 사회갈등의 해소는 국가의 발전과 생존의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서 사회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회응집력 약화, 상호 불신 및 관계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는 결국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16]. 특히 이익갈등은 분배와 관련한 갈등으로서 이익갈등이 심화될수록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에 대한 불만과 개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20]. 이처럼 이익갈등을 비롯한 사회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전 계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뉴미디어 이용 수준과 정서적 웰빙 수준 간의 관계에서 이익갈등 수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뉴미디어 이용은 정서적 웰빙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이익갈등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쳐 정서적 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뉴미디어 이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익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뉴미디어 이용 수준과 정서적 웰빙 수준, 그리고 이익갈등 인식 수준 간에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개인의 정서적 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모두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 뉴미디어 이용 수준이라는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뉴미디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뉴미디어 이용과 이익갈등에 초점을 맞춰 살펴 보았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이익갈등과 함께 가치갈등에 대한 자료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 사회의 건강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익갈등에 대한 인식을 완화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 S. Yoon, and N.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on, SNS fatigue and Depression among Adult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NS Usage Intention -",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46, No.2, pp.120-149, June 2018. <http://doi.org/10.24301/MHSW.2018.06.46.2.120>.
- [2] K. J. Cho, and J. W. Choi, "Seoul Citizens'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and Its Implications", *Policy Report*, No.334, pp. 1-22, November 2021.
- [3] J. W. Chung, "The patterns of Media Use and Their Effects on the Perceived Levels of Social Conflict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40, No.4, pp. 39-100, December 2023. <http://doi.org/10.36494/JCAS.2023.12.40.4.3>.
- [4] J. K. Roh, and Y. Min, "Effects of Politically Motivated Selective Exposure on Attitude Polarization: A Study of Non-Political Online Community Us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Vol.56, No.2, pp. 226-248, April 2012.
- [5] M. L. N. Steers, R. E. Wickham, and L. K. Acitelli, "Seeing everyone else's highlight reels: How Facebook usage is linked to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33, No.8, pp. 701-731, October 2014. <http://doi.org/10.1521/jscp.2014.33.8.701>.

- [6] W. Kong, and Y. Chung, "The Impact of Digital Media Usage Levels Among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on Anxie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uilt,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38, No.6, pp. 5-43. November 2024.
- [7] J. Gao, P. Zheng, Y. Jia, H. Chen, Y. Mao, S. Chen, ... and J. Dai, "Mental health problems and social media exposure during COVID-19 outbreak". *Plos one*, Vol.15, No.4, e0231924, April 2020. <http://doi.org/10.1371/journal.pone.0231924>.
- [8] C. H. Clark, D. T. Bordwell, and P. G. Avery, "Gender and public issues deliberations in named and anonymous online environments", *Journal of Deliberative Democracy*, Vol.11, No.2, December 2015. <http://doi.org/10.16997/jdd.232>.
- [9] J. T. Klapper,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Free Press, 1960.
- [10] J. G. Lee, and S. H. Lee, "The political effect of Traditional Media and New Media: Selective Exposure and Polarization", *Social Science Studies*, Vol.24, No.1, pp. 8-49, February 2016. <http://doi.org/10.17787/jsgiss.2016.24.1.8>.
- [11] Y. S. Hwang, "Political Divide of Twitter Space: The Verification of Selective Disclosur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Vol.57, No.2, pp. 58-79. March 2013.
- [12] M. J. Oh, "The impact of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on Economic Outlook: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Trust in government",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32, No.4, pp. 63-89, February 2022. <http://doi.org/10.53865/KSPA.2022.2.32.4.63>.
- [13] J. Y. Yim, H. Y. Kim, and Y. S. You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nflict and in Different Types of Relationships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Young-Old and the Old-Ol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5, No.3, pp. 645-657, August 2016. <http://doi.org/10.15842/kjcp.2016.35.3.005>.
- [14] G. Lee, "Exploring Social Justice as a Mechanism of Reducing Social Conflict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19, No.4, pp. 27-51, December 2015.
- [15] T. L. Schuster, R. C. Kessler, and R. H. Aseltine Jr. "Supportive interactions, negative interactions and depressed moo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8, No.3, pp. 423-438. June 1990.
- [16] D. C. Kim, K. P. Park, and D. G. Kim,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itizens' Social Inclusiveness Value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Trust and Social Conflict", *GRI REVIEW*, Vol.22, No.1, pp. 1-31, February 2020. <http://doi.org/10.23286/gri.2020.22.1.001>.
- [17] W. J. Lee, "Pension Refrom in Korea: Between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Exploitation", *East Asia Foundation*, No.227, pp. 1-5, January 2025.
- [18] E. H. Park, and D. H. Kim, "The analysis on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 and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Vol.28, No. 1, pp. 119-164, March 2022.
- [19] A. A. Alsunni, and R. Latif,, "Higher emotional investment in social media is related to anxiety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aibah University Medical Sciences*, Vol.16, No.2, pp. 247-252, April 2021. <http://doi.org/10.1016/j.jtumed.2020.11.004>.
- [20] H. J. Smith, T. F. Pettigrew, G. M. Pippin, and S. Bialosiewicz, "Relative deprivation: A theoretical and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16, No.3, pp. 203-232, December 2012. <http://doi.org/10.1177/1088868311430825>.

Authors



Min Soo Kim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4, 2018 and 2022, respectively.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won University, Chung ju, Korea, in 2025.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Administration, Social Policy, Disaster, and Generation.



Woo Hong Cho Received the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Chosun University, in 2007. Dr. Cho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won University, Chungbuk, Korea, in

2014. The main interesting fields are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policy,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elderly welfare, community welfare.